

문화예술 '운영'의 실용적 참고서

문예진흥원 「문화예술총서」 14권 완간

80년대 들어 더욱 가속화되었던 문화예술 전반의 양적·질적 팽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원(원장 여석기)이 지난 86년부터 기획, 발간해왔던 문화예술총서가 최근 제13, 14권을 끝으로 완간됐다.

우리 문화예술계의 현장을 점검하고 세계예술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 후기산업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반 문화예술의 이론적 틀을 제공할 목적에서 기획된 이 총서는 시작 당해년인 86년 4권이 발간된 이래 매년 2~4권씩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문화예술 관계자들 사이에 호평을 받아왔던 시리즈

예술행정, 문화공간, 예술경영, 예술공학, 예술·경제, 아트센터, 예술정보, 문화산업 등 모두 14개 분야로 나뉘어진 이 작업에는 해당부문의 전문가 200여명이 집필에 참가, 각 분야의 새로운 사항들을 꼼꼼히 다루고 있는데, 총서는 내용에 따라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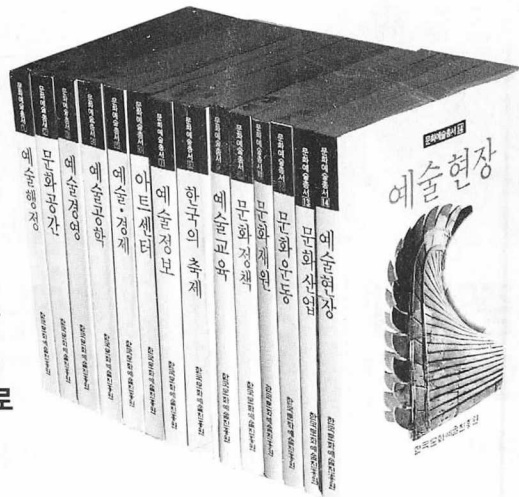
우선 문화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의 확산을 위한 재원확보의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로 「예술행정」(1권) 「예술·경제」(5권) 「문화정책」(10권) 「문화재원」(11권) 「문화운동」(12권)을 꼽을 수 있다. 이 기획의 첫번째이기도 한 「예술행정」편은 문화예술정책을 형성·결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과 관련된 외국의 최신이론과 운영실태를 상세히 비교검토함으로써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우리 예술행정에 새로운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

「예술·경제」편은 창작활동의 자극과 수요의 촉진이라는 두 문제가 균형있게 발전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 예술과 경제의 협력방안과 바람직한 상보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모두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한 가운데 5년만에 완간된 이 「문화예술총서」는 예술행정이나 문화정책, 예술경영, 문화산업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의 밀도가 덜했던 부분들에 대한 최신정보와 구체적 사례들을 비교적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있도록 국내외의 예술시장의 사례를 검토했다. 「문화재원」편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1/10에도 못미치는 우리의 문화예산규모를 점검,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고 및 민간자금의 배분과 효율적인 투자방법에 대한 주요 실행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놓았다. 「문화정책」편은 각국의 우수문화정책 및 관련논문, 정책사례들에 대한 현장보고서를 수록하고 있으며, 「문화운동」은 문화에의 접근 및 확산을 유도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정부 및 민간문화단체들의 문화촉매기능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데 묶어볼 수 있는 주제들은 문화의 기능적인 면을 살펴보는 기획들. 「문화공간」(2권) 「예술경영」(3권) 「아트센터」(6권) 「문화산업」(13권)이 여기에 속한다. 「문화공간」편에서는 국내 문화시설들을 살펴보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다루고 있



는데, 문화시설은 물리적 보존의 의미뿐 아니라 문화교육, 문화전수, 문화참여의 기회를 높이는 촉매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관리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영국 국립학교, 프랑스 알레귀앙 문화원 등의 운영방안을 예로 들며 대안을 모색했다. 「예술경영」편은 각종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경영방법을 찾자 연구, 무용, 전시 등 외국의 경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아트센터」편은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인 박물관, 극장 등 아트센터의 연혁·기능·운영 등을 소개하고 그 변천사를 화보와 함께 다루고 있으며, 올바른 예술시장을 정립코자 기획한 「문화산업」은 이 말을 맨 처음 사용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과 '다원적 인문주의 문화론' 등 대중문화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논문을 실고 있다.

또한, 예술과 첨단산업과의 만남, 새로운 사조의 도입 등을 다루고 있는 「예술공학」(4권) 「예술정보」(7권) 「예술현장」(14권) 등에서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영역확대를 가져온 컴퓨터애니메이션, 비디오아트 등에 대한 최신이론 및 활용방안을 소개하면서, 60년대 이후 새롭게 형성·전개된 국내예술운동에 대한 개념설정과 현장분석 방법론 등을 통해 현대예술의 이해를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적 계승과 교육을 다룬 기획으로 「한국의 축제」(8권)와 「예술교육」(9권)편이 있다. 이중 앞의 책은 전통적인 축제의 사례 및 용어와 지역별 축제양식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고, 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술교육정책과 프로그램사례 등에 관련된 주요이론 및 현장보고를 실고 있다.

외국의 주요 문화원과 최신 문화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사례를 중점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이 분야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는 것이 이 총서의 가장 큰 특징. 그동안 예술의 소집단 운동이나 흐름을 통해서만 파악해왔던 문화예술 분야가 행정정책 산업으로서의 역할까지 다뤄짐으로써 이 문화예술총서의 완간은 90년대 한국문화운영의 실용적 지침으로 역할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혜옥 기자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91 동계 언론 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마감 : 3월 16일
무료공개특강 : 3월 16일
수강대상 : 고졸(예정자) 이상, 전문대, 대졸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73-3 (인성빌딩 2F)

(代) 812-1715~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삭을 줍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삭을 보배로
깨어야 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 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